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Teachers' Attachment History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Examining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이가영¹ 채진영²

Ga-Young Lee¹ Jin-Young Chae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teachers' attachment history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this survey were 342 teachers from 41 day care centers and 11 kindergartens in four metropolitan cities and five province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through frequency and percentage calculation, Pearson's correlations, and the mediation methods suggested by Baron & Kenny(1986) were calculated by using SPSS 21.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age points of the attachment history of early childhood, the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child-teacher relationship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Also, all the variables had correlations. Second, the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history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s. These results imply that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s needed for positiv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s.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제1저자

전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 수료생

²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및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Visiting Scholar, Columbia University (e-mail : jychoe@jbnu.ac.kr)

|| **key words** attachment history, child-teacher relationships,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

I. 서론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증가, 높아지는 교육열 등의 추세로 전국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영유아수가 2003년 약 85만명에서 2014년에는 약 149만명으로 약 60만명 증가했으며, 유치원의 재원 유아수는 2003년 전체 약 55만명에서 2014년에는 약 65만명으로 약 10만명 가량이 증가했다(박지아, 박창현, 엄지원, 20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유보육기관에 속해있는 유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유아교사와 함께 하는 유아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

치이다. 이는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하고, 보살피며 교육하는 유아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 유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 학대에 관한 사안 역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학대 사건을 필두로 온 국민의 관심이 유보육기관과 유아교사에 집중되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5월, 아동학대 행위 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교육부 역시 지난 8월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권형진, 2015). 이처럼 유보육기관 및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교사는 유아가 가정을 벗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인적 환경이다(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교사는 주양육자와 마찬가지로 유아와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Schaffer & Emerson, 1964). Bowlby(1969/1982)는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서적·감성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애착의 형성은 생애초기에 주 양육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능력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부모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협상능력이 발달하여, 타인과의 갈등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뿐만 아니라 생애초기에 경험한 애착은 이후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정체감 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청년기 대인관계 적응과 상관이 높는데, 이는 상호관계의 친밀성, 의사소통적 관계,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Sroufe, Egeland, & Carlson, 1999). 이러한 영역들은 유아교사가 유아와 함께 하는 현장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며, 그 중요성 역시 높다.

오래전부터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하게 규명한 연구들이 많았다(Decker & Decker, 1976; DeMulder et al, 2000; Saracho, 1984). 먼저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하여 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이며 활발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아교사는 유아의 모델링 및 동일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DeMulder et al, 2000). 이 시기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또래들과 경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의 주도성이 길러지는 시기이다(Erikson, 1982). 이 때 유아교사의 적극성과 주도적인 태도를 유아들이 모델링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Saracho(1984)는 교사를 교수 구성자, 진단자, 학습운영자, 상담자 및 조언자, 의사결정자 등으로 정의하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유아교사의 주된 역할은 유아의 신체 및 건강과 정서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및 지도, 효과적인 보육을 위한 의사결정자, 생활지도 및 평가를 위한 교수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들을 유보육 현장에서 감당해야하는 유아교사의 중요성과 유아-교사 관계의 질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사의 관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보면, 먼저 유아와 교사의 긍정적 관계는 유아의 인지발달 및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연희, 2011). 홍계

옥(2007)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사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유아일수록 외현화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eresa & Wendy, 2016). 유아의 정서적 발달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아기는 정서조절이 시작되는 시기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조절에 대해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Causey & Dubow, 1992).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유보육기관 내 유아의 위축행동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권연희(201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아-교사 간의 관계가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영희와 성소영(2013)은 교사가 장시간 유아와 함께 하면서 정서적·심리적 발달뿐 아니라 신체적인 발달 역시 돕게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관계는 유아의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Birch & Ladd, 1997). 유아-교사 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의 수학적 성취(math achievement)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Clancy, Rachel, the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2016; Meghan, Erin, Elise, & Sandee, 2013). 또한 유아가 유보육기관에서 학교로 진학할 때의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킨다(Pianta, 1999). 흥미로운 점은 유아의 발달적 성취와 학교 적응에 있어서 유아-어머니관계보다 유아-교사관계가 더 많은 부분을 예측한다는 것이다(Pianta & Steinberg, 1992).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 간의 친밀관계가 많이 나타날수록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덜 경험하기까지 한다(권연희, 2013). 이처럼 유아-교사관계는 유아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유아와 교사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아-교사 관계는 주양육자와 유아의 관계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아-교사관계의 질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관계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관계와 그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많지 못한 것이 현 국내 연구의 실정이다. 더불어 유아-교사관계 자체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아-교사관계 및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선애와 현은자(2010)는 유아-교사관계와 또래유능성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으며, 천향숙과 조은진(2011)은 유아-교사관계와 자기조절능력, 교사 효능감,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 소진과 효능감, 교사의 우울감, 교사의 기질 등이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경희, 2010; 최승숙, 2011) 등이 있지만, 여전히 그 연구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천향숙, 조은진, 2011).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본 해외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교사신념,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특성 및 교사 자신의 애착경험 등이 유아-교사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Kesner, 2000; Mashburn, Hamre, Downer, & Pianta, 2006; Robert, Tracy, & Rachel, 2014). 이를 토대로 교사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교사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한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Kesner, 2000)는 해외 연구의 결과과연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면 유아-교사관계 형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Pottharst와 Kesler(1990)는 ‘애착히스토리’란 초등학교시절의 가족(특히 부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와 부모의 훈육방법, 친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애착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뜻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긍정적 애착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유보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아와 교사의 관계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성인기의 타인과의 관계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애착히스토리가 현재의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Ryff(1989)는 심리학 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차원인 자아수용(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hip),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하였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즉,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수립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양병한, 2003).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알아본 정민, 이미라 그리고 노안영(2006)은 심리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자율성, 개인적 성장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문(2008)의 연구에서는 부애착, 모애착,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영문과 박수진(2013) 역시 불안애착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예비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성한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음이 나타났다(김정원, 강희신, 최소린,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아동기에 형성한 부모와의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배효정, 김도연, 2015). 유경자(2005)의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김용희(2012)의 연구에서도 불안정애착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 양가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의 애착경험은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므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해 본다면,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교사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교사 헌신에 영향을 주며(노경민, 2009),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교사의 교육 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박종흡, 신남철, 2002), 교사-유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재호, 고태순, 2008) 또한 이미란과 김정원(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느끼는 심리

적 안녕감이 유아와의 관계, 그리고 수업에 대한 헌신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으며(천부경, 양난미, 2013),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에 정적상관을 보이기도 했다(한희정, 서현아, 오소라, 하지민, 2014).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누적과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소지가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박태성, 2015),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이 유아-교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들에게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아-교사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유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 간의 관련성에서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전국 5개도 유보육기관 52곳(41개 어린이집 및 11개 유치원)의 유아교사 324명이다. 유아교사 총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375부로 회수율 96.15%를 보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 78부를 제외하고 29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인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 294명(99.0%), 남자 3명(1.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26~30세가 81명(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만 40세 이상이 62명(20.9%), 만 20~25세 61명(20.5%), 만 31~35세 60명(20.2%), 만 36~40세 33명(11.1%)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164명(55.2%), 기혼 133명(44.5%)으로 나타났고, 성장지역은 중소도시 143명(45.1%), 농·어·산촌 96명(32.3%), 대도시 55명(19.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력은 10년 이상이 77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 60명(20.2%), 1년 이상 3년 미만 49명(16.5%), 7년 이상 10년 미만 46명(15.5%), 5년 이상 7년 미만 43명(14.5%), 1년 미만 2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N = 297)

| 특성 | 구분 | n | % | 특성 | 구분 | n | % |
|--------------|-------------|------|-------------|----------------|------------|------|------|
| 성별 | 남자 | 3 | 1.0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 13 | 4.4 |
| | 여자 | 294 | 99.0 | | 전문대학 졸업 | 172 | 57.9 |
| 연령 | 만 20~25세 | 61 | 20.5 | | 4년제 대학 졸업 | 103 | 34.7 |
| | 만 26~30세 | 81 | 27.3 | | 대학원 이상 | 9 | 3.0 |
| | 만 31~35세 | 60 | 20.2 | 근무 유형 | 국공립 어린이집 | 16 | 5.4 |
| | 만 36~40세 | 33 | 11.1 | | 민간 어린이집 | 161 | 54.2 |
| | 만 40세 이상 | 62 | 20.9 | 법인 어린이집 | 3 | 1.0 | |
| 결혼 상태 | 기혼 | 133 | 44.8 | 가정 어린이집 | 1 | .3 | |
| | 미혼 | 164 | 55.2 | 사립 유치원 | 116 | 39.1 | |
| 성장 지역 | 대도시 | 58 | 19.5 | 담당 유아수 | 10명 미만 | 28 | 9.4 |
| | 중소도시 | 143 | 48.1 | | 10~15명 | 68 | 22.9 |
| | 농·어·산촌 | 96 | 32.3 | | 16~20명 | 106 | 35.7 |
| 근무 경력 | 1년 미만 | 22 | 7.4 | | 21~25명 | 69 | 23.2 |
| | 1년 이상~3년 미만 | 49 | 16.5 | | 26명 이상 | 26 | 8.8 |
| | 3년 이상~5년 미만 | 60 | 20.2 | 하루 근무 시간 | 8시간미만 | 9 | 3.0 |
| | 5년 이상~7년 미만 | 43 | 14.5 | | 8이상~10시간미만 | 124 | 41.8 |
| 7년 이상~10년 미만 | 46 | 15.5 | 10이상~12시간미만 | | 139 | 46.8 | |
| | 10년 이상 | 77 | 25.9 | 12시간이상 | 25 | 8.4 | |

2. 연구도구

1) 애착히스토리

본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Pottharst와 Kesler(1990)가 개발한 총 51문항의 The Attachment History Questionnaire(AHQ)를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번안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 상호작용’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나요?’ 등의 23문항이, 하위영역 ‘부모의 훈육방법’은 ‘부모님은 경찰이나 무서운 아저씨를 불러서 당신을 잡아가라고 한다는 식의 훈육을 하셨나요?’ 등을 포함한 17문항이, 하위영역 ‘친구와의 관계’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냈나요?’ 등을 포함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를 1점, ‘항상 그랬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14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총점의 분포는 68~24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어린 시절에 부모 및 친구와 긍정적인 애착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94였으며, 하위영역은 .89, .94, .71 순이었다.

2) 심리적 안녕감

본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를 조명환과 차경호(1989)가 한국판으로 번안·수정한 것을 본 연구자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1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문항 수는 46문항이며, 하위영역 ‘자아수용’은 ‘나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 한다’등의 문항을 포함한 8문항이, 하위영역 ‘자율성’은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등의 문항을 포함한 7문항이, 하위영역 ‘긍정적 대인관계’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등을 포함한 7문항이, 하위영역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등을 포함한 8문항이, 하위영역 ‘개인성장’은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등을 포함한 9문항이, 하위영역 ‘삶의 목적’은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등의 문항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23개 항목은 역코딩하였다. 총점의 분포는 67~21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자아수용능력과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고 삶의 목적이 뚜렷하며 개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의 α 계수는 .94였으며, 하위영역은 .76, .63, .80, 71, .78, .84 순이었다.

3) 유아-교사관계

본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Reid, Landesman, Treder 그리고 Jaccard(1989)가 개발한 My Family and Friends(MFF)를 Christopher, Kelly 그리고 Gregory(2008)가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유아용 설문지인 My Family and Friends-Child(MFF-C)로 재구성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교사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한 뒤 아동학 전공 교수 1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우리반 아이들은 기쁨이나 슬픔 등과 같은 기분을 나에게 잘 표현한다.’등의 문항을 포함한 단일요인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갈등을 의미하는 1개 문항을 역코딩하였으며, 총점의 분포는 32~55점이고,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와 교사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가 유아에 대해 적절한 상호작용과 지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사에 앞서 J지역의 어린이집 2곳을 임의 선정하여 원장에게 연구에 관한 설명 및 협조 요청을 한 후 동의를 구한 뒤 만 5세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히스토리를 측정하는 항목 중 의미가 어색하다고 지적한 1개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전국 5개도 유보육기관 52곳(41개 어린이집 및 11개 유치원)을 임의선정한 후 유아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각 기관의 원장 및 교사에게 본 연구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유아교사에게 조사허가 동의서를 받았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우편 및 이메일로 수거하여 29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애착히스토리,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한 후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TOL)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알아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족상호작용, 훈육, 친구관계), 심리적 안녕감(자아수용,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성장, 삶의 목적), 유아-교사관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의 3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훈육’($M=4.28$, $SD=.58$)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상호작용’($M=3.92$, $SD=.50$)과 ‘친구관계’($M=3.49$, $SD=.4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에 관한 전체 평균은 3.94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SD=.42$).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해서는 6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긍정적 대인관계’($M=3.71$, $SD=.54$)와 ‘삶의 목적’($M=3.71$, $SD=.55$)이 가장 높았고, 자율성($M=3.24$, $SD=.42$)에 관한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 평균은 3.51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SD=.35$). 유아-교사관계의 경우에도 전체평균 3.94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했다($SD=.39$).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정옥분, 2010), 왜도 $<|3|$, 첨도 $<|10|$ 이면 정규 분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DeCarlo, 1997; Kline, 2010). 본 연구의 모든 관측 변수들의 왜도는 -2.17~1.21

〈표 2〉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에 대한 기술통계 (N = 297)

| 구분 | M | SD |
|------------|------|-----|
| 애착히스토리 | 3.94 | .42 |
| 가족상호작용 | 3.92 | .50 |
| 훈육 | 4.28 | .58 |
| 친구관계 | 3.49 | .42 |
| 심리적 안녕감 | 3.51 | .35 |
| 자아수용 | 3.35 | .46 |
| 자율성 | 3.24 | .42 |
| 긍정적 대인관계 | 3.71 | .54 |
| 환경에 대한 통제력 | 3.42 | .44 |
| 개인성장 | 3.63 | .47 |
| 삶의 목적 | 3.71 | .55 |
| 유아-교사관계 | 3.94 | .39 |

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침도의 경우 -4.36~2.26의 분포를 나타내어 변인들의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2.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앞서 각 변인인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의 범위는 .12에서 .45로 나타났다($p < .05$, $p < .01$). 애착히스토리의 훈육과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을 제외한 모든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히스토리는 심리적 안녕감($r = .43$, $p < .01$)과 정적 상관관계, 유아-교사관계($r = .35$, $p < .01$)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교사관계($r = .42$, $p < .05$)도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는 .82, VIF 지수는 1.22로 나타나 허용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애착히스토리가 종속변수인 유아-교사관계를 유의미하게 예측($\beta = .32$,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긍정적인 애착경험을 많이 한 교사가 현재에도 긍정적인 유아-교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애착히스토리

〈표 3〉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 간의 상관관계 (N = 297)

| 구분 | 심리적 안녕감 | | | | | | | 유아-교사 관계 | |
|------------|------------|-------|-------------|-----------|----------|----------|-------|-------------|-------|
| | 자아 수용 | 자율성 | 긍정적 대인관계 | 환경 통제력 | 개인 성장 | 삶의 목적 | 전체 | | |
| 애착 히스토리 | 가족 상호작용 | .31** | .20** | .40** | .30** | .29** | .31** | .41** | .33** |
| | 훈육 | .12* | .09 | .19** | .26** | .18** | .23** | .25** | .20** |
| | 친구관계 | .32** | .19** | .44** | .29** | .33** | .36** | .45** | .39** |
| | 전체 | .29** | .19** | .40** | .34** | .31** | .35** | .43** | .35** |
| 유아-교사관계 | .25** | .20** | .39** | .33** | .32** | .34** | .4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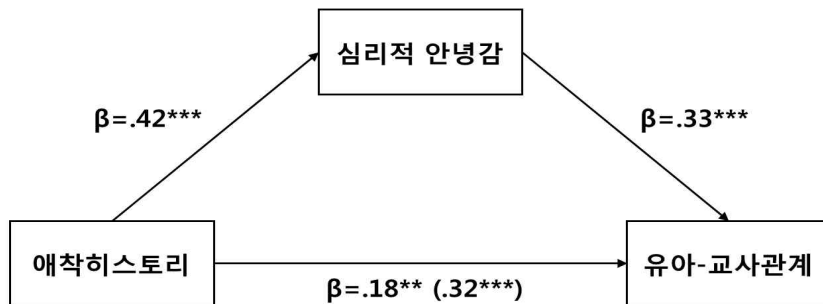
* $p < .05$, ** $p < .01$.

가 매개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42,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긍정적인 애착경험을 많이 한 교사가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애착히스토리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 분석에서는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를 유의미하게

〈표 4〉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 구분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β | t | R ² | F |
|-----|---------|---------|-----|---------|---------|----------------|----------|
| 1단계 | 유아-교사관계 | 애착히스토리 | .30 | .32 | 5.81*** | .10 | 33.76*** |
| 2단계 | 심리적 안녕감 | 애착히스토리 | .35 | .42 | 8.00*** | .18 | 64.02*** |
| 3단계 | 유아-교사관계 | 애착히스토리 | .17 | .18 | 3.10** | .19 | 35.23*** |
| | | 심리적 안녕감 | .37 | .33 | 5.75*** | | |

** $p < .01$, *** $p < .001$.



[그림 1]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의 부분매개효과

** $p < .01$, *** $p < .001$.

주. 괄호 안은 매개변수 투입 전의 표준화 회귀계수임.

예측($\beta = .18,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유아-교사관계를 유의미하게 예측($\beta = .33,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를 예측하는 정도가 1단계보다 낮으므로, 심리적 안녕감은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긍정적인 애착경험은 현재의 유아-교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기도 하고, 또한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Z값은 4.68($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은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이 때 매개효과의 크기는 애착히스토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beta = .42$ 와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beta = .33$ 값의 곱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긍정적인 유아-교사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심리적 안녕감을 관련 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아교사들에게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아-교사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유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가 지각한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 모두 중앙값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진과 김정미(2013)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부모애착이 중앙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 및 유아교사의 성인애착이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난 김혜정과 김혜순(2015)의 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앙값 이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김안나, 2014; 서현주, 2006; 이미란, 김정은, 2011),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사관계의 정도가 중앙값 이상으로 긍정적이라는 박민지과 김민진(2016)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아교사는 교육 및 돌봄이 요구되는 직업으로써 본인의 긍정적인 애착경험이 어린 유아를 교육시키고 돌보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 스스로 본인의 애착경험, 심리적 안녕감 및 유아-교사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및 평가가 유보육현장에서 자신감으로 발휘되어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 및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즉, 교사의 애착히스토리는 유아-교사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유아-교사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애착히

스토리과 유아-교사관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작용한 이유는 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긍정적인 애착히스토리는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교사가 유아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연구결과(Kesner, 2000)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애착히스토리가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운데서 심리적 안녕감의 역할도 함께 밝힌 것이다. 교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애착이 현재의 유아-교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 애착에 대한 경험들은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 시절 경험하는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애착의 영향력은 성인 이후에도 계속되고 다양한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동시에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기에 교사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 행복감 등에 관한 범사회적인 관심과 교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유아교사가 지각한 애착히스토리, 심리적 안녕감, 유아-교사관계에 대한 점수가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세 변인은 모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유아교사의 애착히스토리와 유아-교사관계와의 관계에서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매개 역할을 하였다. 교사의 어린 시절 애착에 대한 경험과 그 기억들이 현재의 유아-교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애착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주어, 그러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유아-교사관계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유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유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적인 교육뿐 아니라 유아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애착경험과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사의 입장에서만 응답한 유아-교사관계이다. 추후에는 유아들이 느끼고 있는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파악하여 교사의 응답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애착히스토리와 심리적 안녕감만을 설정하였지만, 더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유아-교사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욱 폭넓은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의 신뢰도 계수가 .63이었다.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가 .60이상이면 신뢰할만하다고 보는 학술

적 견해(성태제, 2002)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보다 더 정확하고 초점 있는 연구를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신뢰도가 높은 항목들을 선택해 연구하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연희 (2011). 남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3), 595-609.
- 권연희 (2012).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교사 관계가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341-363.
- 권연희 (2013). 유아의 문제행동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2(3), 391-404.
- 권형진 (2015, 8, 11). 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바로 문 닫는다 (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2369201>에서 2015년 8월 11일에 인출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안나 (2014). 유아교사의 조직몰입,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63-182.
- 김정문 (2008).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6), 197-224.
- 김용희 (2012).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9(9), 231-256.
- 김정원, 강희신, 최소린 (2013).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예비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4(4), 448-505.
- 김지혜, 진미경 (201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8(4), 285-305.
- 김혜정, 김혜순 (2015). 유아교사의 애착실행모델과 교사민감성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4(4), 748-760.
- 노경민 (2009). 초등학교 기혼여교사의 양육효능감과 교사헌신과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 김민진 (2016). 또래 유능성, 자아존중감, 교사-유아관계와 유아 행복간의 구조 관계 분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 217-240.
- 박종흡, 신남철 (2002).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연구. **인문논총**, 9, 91-111.
- 박태성 (2015, 12, 6).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열악한 환경, 우울한 보육**

- 교사**.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25116>에서 2015년 12월 6일에 인출
- 배효정, 김도연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배우자의 부모역할지지, 심리적 안녕감이 아버지의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 7(4), 147-164.
- 서현주 (2006).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 효능감과의 관련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2002).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심영희, 성소영 (2013).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역할수행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한국아동교육학회**, 22(2), 121-138.
- 양병한 (2003). 초등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교육학연구**, 41(4), 285-309.
- 오경희 (2010). 유아-교사의 갈등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교사변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경자 (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박창현, 엄지원 (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서울: 유아정책연구소.
- 이미란, 김정원 (2011). 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현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2), 243-260.
- 이선애, 현은자 (2010).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31(2), 1-15.
- 이유진, 김정미 (2013).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애착, 자아분화, 학과만족도 간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33(2), 145-162.
- 이채호, 고태순 (2008).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아동교육**, 17(3), 173-185.
- 정민, 이미라, 노안영 (2006).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7(4), 1023-1038.
- 정옥분 (2010). **아동연구와 통계방법**. 서울: 학지사.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천부경, 양난미 (2013).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32(3), 719-733.
- 천향숙, 조은진 (2011). 교사와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 및 관련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32(4), 167-183.
- 채영문, 곽수진 (2013). 대학생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공감능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 22(6), 559-613.
- 최승숙 (2011). 교사 소진과 효능감이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희정, 서현아, 오소라, 하지민 (2014). 유아교사의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143-164.
- 홍계옥 (2007). 교사-유아간 애착과 유아의 정서지능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4(1), 21-3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Christopher, M., Kelly, M. M., & Gregory, A. W. (2008). Child and teacher repor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oncordance of perspectives and associ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in urban kindergarten classroo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9-61.
- Clancy, B., Rachel, D. M., & the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2016). Moder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s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s ability in kindergarten. *Learning and Instruction*, 41, 85-93.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3), 292-307.
- Decker, C. A., & Decker, J. R. (1976).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DeMulder, E. K.,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Y: W. W. Norton & Co.
- Kesner, J. E. (2000). Teacher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8(2), 133-149.
- Kline, P.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Mashburn, A. J., Hamre, B. K., Downer, J. T., & Pianta, R. C. (2006). Teacher and classroom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eacher' ratings of prekindergartners' relationships and behavior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4(4), 367-380.
- Meghan, P. M., Erin, E. O., Elise, C., & Sandee, G. M. (2013).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A multilevel propensity score model approach.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611-624.

- Pianta, R. C., & St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ttharst, K., & Kesler, R. (1990). The search for methods and measures. In K. Pottharst (Ed.), *Research explorations in adult attachment* (pp. 9-37). NY: Lang.
- Reid, M., Landesman, S., Treder, R., & Jaccard, J. (1989). "My Family and Friends": Six-to twelve-year-old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60(4), 896-910.
- Robert, C. W., Tracy, D. W., & Rachel, A. G. (2014). Workplace stress and the quality of teacher-children relationship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0(1), 57-6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racho, O. N. (1984). Perception of the teaching proces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role analysi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rception International*, 19(1), 26-39.
- Schaffer, H. R., & Emerson, P. 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3, Serial No. 94), 3-76.
-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1999, March). *One social worl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30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hild Psychology, Minnesota, US.
- Teresa, M. M., & Wendy, L. G. (2016). Do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contribute to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Support for a child-driven mode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4(1), 13-26.

논문투고: 16.03.17
수정원고접수: 16.06.14
최종게재결정: 16.07.29